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김 용 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지난 6월 8일에 발표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거의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책 실현 단계를 크게 기획, 계획, 건설, 유지관리의 4단계로 나뉘볼 때, 2011년까지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운하 건설사업의 변형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훼손 등 수많은 부작용과 사업의 변질을 막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는 예상되는 물 부족과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강의 생태환경을 살리고,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침체 일보에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4대강 살리기가 지역발전차원에서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을지 꼼꼼히 살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는 새로운 연계통로와 발전축을 형성하여 지역간 교류 촉진과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강은 살기 좋은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을 배경으로 보듬사리가 시작된 근원이다. 도시는 강을 따라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흔히 강을 지역의

첫째, 4대강 살리기가 지역 간 교류와 발전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주변의 도시 및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상호연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간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세계적인 도시모델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덕R&D특구, 공주의 백제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4대강 살리기는 주변의 도시와 하천의 연계를 강화하고 쇠퇴화된 기존 도심의 재생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 산업화 초기단계에 형성된 원도심으로 불리우는 도시 중심부는 도시구조와 시설이 부 정형적이고 취약하다. 특히, 오래된 도시 중심부는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의 대응이 어려워 대부분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의 확산으로 신시가지와 신도시 건설이 증대하면서 원도심의 정주인구 이탈현상이 발생되어 도심 쇠퇴화를 부추기고 있다. 원도심 지역은 취약한 물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도시서비스 및 상거래의 중심지로서 전통과 문화 및 생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하천과 연계하여 재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4대강 살리기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조명과 활용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고유의 관광, 여가,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휴자는 20세기를 국가중심시대, 21세기를 지역중심시대라고 말한다. 이것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핵심에 바로 문화가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관광, 여가, 문화 산업의 육성과 지역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해야 한다. 4대강 주변지역은 상당수가 고립된 입지와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그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가 추진되면 지역 간 소통과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묻혀있던 지역 고유의 발전 잠재력이 발휘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4대강 살리기는 새로운 친수 체험 및 문화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지역 살리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충청투데이 7월 10일자 20면]